

전북 대전환의 길 열겠다

Q1. 도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부터 하신다면?

-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에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는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기반 확립은 물론, 지역발전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 힘 없이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노력이 더욱 굳건한 결실로 이어지도록 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더 가까이에서 호흡하겠습니다.

전북의 발전과 미래가치를 키우는 일에 항상 도민과 함께하겠습니다.

Q2. 지난 한 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 성과를 꼽는다면?

- 지난 한 해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과 산업 전환, 창업 활성화, 복지, 안전 등 전북의 구조적 변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축으로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부진을 위한 도민 참여와 제도 변화를 주도하면서 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고 봅니다.

특히 연초 탄핵 정국 속에서 헌정 질서 수호와 도민의 민생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토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합니다.

또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과의 연계를 강화한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군사항 준설, 새만금 조기 개발, 지역 재정 특례,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 핵심 현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의회 정수 확대'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견인했고,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자체 승진과 교육청 과경 직원의 단계적 확대복귀 등을 통한 인사권 독립도 추진했습니다.

Q3. 새해 각오와 중점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 2026년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실행의 해'입니다. 이제는 전북이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도의회는 도민 중심의 정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와 협력의 균형 속에서 특별자치도의 성공 기반을 단단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우선, 전북특별법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행령·시행규칙 정비와 추가 특례 발굴, 자치입법권 확장을 위한 조례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구 위기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청년정책, 농산어촌 지원, 그리고 전북혁신도시 시군 준비도 치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사업 정상화에 필요한 의정 역량을 집중하고, 도시재생, 무자 환경 개선, 주력 산업(자동차·농생명)의 신기술 전환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RE100 기반 인프라 구축을 촘촘하게 지원해 투자 유치의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

의회 스스로도 변화하겠습니다. 조직권·예



산권의 복원을 통해 일하는 의회 체계를 만들고, 정책 지원 역량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도민과의 직접 소통 플랫폼을 확대해 도민 목소리가 정책으로 바로 연결되는 의회, 체감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Q4. 도의원 정수 확대를 추진하셨는데,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 구역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대응 방안은?

- 전북은 인구 규모는 작지만 면적이 넓고 생활권이 다양해 도의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지역 대표성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는 2024년부터 중앙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고 전북의 특수성을 인

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대표성과 균형성'을 조속히 바로잡으라는 취지입니다. 의회는 시군의 의견을 세심하게 청취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도민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는 선거구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지역 균형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키며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Q5. 전북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Q5-1. 전북 RE100 산업단지 추진에 대한 의회의 입장은?

- RE100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은 전북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RE100 이행 여부를 투자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가장 높은 전북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에 RE100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의회는 RE100 기반 구축을 위한 전력 계통 확충 지원, 기업 유치 인센티브의 제도화, 주민 수용성 확보 모델 마련 등 필요한 정책 기반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전북이 RE100 선도 지역으로 자리잡도록 의회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지난 한 해 전북의 구조적 변화
뒷받침하는 핵심 축 전심전력
올해 '실행의 해'... 특별자치도
성공 기반 단단히 다져나갈 것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 등
의회 차원에서 역할 다할 것
도민 꿈 실현 '전북의 엔진' 될 것

Q5-2. 전주올림픽 유치 실질적 가능성은? 의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 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전북의 도시 브랜드, 관광·산업 구조,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기회입니다. 전북은 문화·관광·환경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만큼, 충분히 도전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다만 치밀한 준비와 국가 차원의 지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도의회는 전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올림픽 개최 도시 요건을 면밀히 검증하고, 국제 스포츠 행사에 필요한 인프라와 수용 능력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숙박·환급 전략 마련, 법·제도 기반 정비 등 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전북만의 지속 가능하고 차별화된 올림픽 모델을 제시해 국가와 국제사회에 경쟁력 있는 유치 전략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5-3. GTX·광역 교통망 등 전북 교통 혁신 과제에 대한 의회의 역할은?

- 전북의 교통 인프라는 수도권과 주요 광역권에 비해 여전히 열악합니다. 올해를 '전북 교통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획기적인 변화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전주·익산·군산·김제·완주를 연결하는 전북권 광역철도망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도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광역버스 확충과 노선 효율화 등을 통해 도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GTX를 포함한 광역급행철도 체계의 전북 연계 타당성 검

토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호남고속철도 고속화와 전주역 KTX 운행 확대 등 핵심 현안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습니다.

Q. 국제 교류에도 힘써오신 것으로 압니다. 성과는?

- 전북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돼야 미래가 열린다는 판단에서, 의회 차원의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강화한 것입니다. 3국 지방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교류·연대 방안을 논의하는 공식 포럼을 다시 활성화했고, 전북이 그 중심 역할을 하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 해외 지방정부 및 의회와의 우호 협력 관계도 확장했습니다. 환경·농생명·문화관광 등 전북의 강점을 살린 교류 의제를 발굴하면서, 실제로 공동 사업이나 교류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교류를 통해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도의회가 '지역 외교'의 주체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Q. 6.3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도의회는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

- 의회는 선거와 무관하게 민생·예산·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구 조정 등 민감한 사안이 많아지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 절차적 투명성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의회가 흔들리면 도민의 삶이 흔들린다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Q. 그동안 의회 운영 과정에서 강조하신 부분은 무엇입니까?

- '일 잘하는 의회, 도민 중심 의회'를 비전으로 투명한 의회 절차가 살아있는 의회, 갈등을 조정하는 의회 실질을 원칙으로 삼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원칙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 위상을 높이는 데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와의 협업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Q.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전북은 지금 큰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새만금의 미래, 특별자치도 권한 산업 대전환, 인구 감소·지역 소멸 극복 등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도민과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더 큰 꿈을 실현하는 '전북의 엔진'이 되겠습니다.

2026년, 전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민생 속에서, 의정의 중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만호 기자

丙午年 병오년

2026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以聽得心
이청득심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때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군산시의회
GUNSAN CITY COUNCIL

2026년도 군산시의회 운영계획안

회기별	기간	회의 일수	주요 내용
제280회 임시회	1. 26.(월) ~2. 5.(목)	11	·부의안건 처리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281회 임시회	3. 9.(월) ~3. 19.(목)	11	·부의안건 처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해빙기)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편성 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제282회 임시회	4. 13.(월) ~4. 16.(목)	4	·부의안건 처리
제283회 제1차 정례회	6. 22.(월) ~6. 25.(목)	4	·부의안건 처리 ·2025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284회 임시회	7. 1.(수) ~7. 2.(목)	2	·제10대 군산시의회 개원식(전반기 원구성)
제285회 임시회	7. 14.(화) ~7. 23.(목)	10	·부의안건 처리 ·특별위원회 구성(예산결산, 윤리)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제286회 임시회	8. 25.(화) ~9. 3.(목)	10	·부의안건 처리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편성 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제287회 임시회	10. 12.(월) ~10. 22.(목)	11	·부의안건 처리 ·26년 업무실적 및 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288회 제2차 정례회	11. 10.(화) ~12. 18.(금)	39	·부의안건 처리 ·행정사무감사 (9월간) ·2026년 결산추경예산(안) 심의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

※ 총회의 9회(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회의일수 102일(정례회 43일, 임시회 59일)

* 본 계획(안)은 의회 일정과 추경예산 편성 및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